

전도자 (고전 9:15-27)

우리는 전도자이다. 우리는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표본이었다고 할수 있다. 전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중요한 답이 나기 바란다. 전도자는 조용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인간을 저주에서 건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전도자이다. 그런데 이 전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래서 이 전도는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응답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될수 있는가 답을 내는 시간 되기 바란다.

지난 수목금 삼일간 파라마운트에 있는 미셔너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집회를 하였다. 그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복음이라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 그 전에 한인타운의 한 교회에서도 이 집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평신도 제자들 중에서는 상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탐탐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함께 복음을 나누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르다. 삼일동안 이틀동안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 삼일째에는 자세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레이코 전도사님이 엔세나다에서 우연히 캠프를 하다가 우연히 만났던 LA 사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후에 마쓰다 목사님과 마리오 전도사님이 교체 하면서 문이 열린 것이다. 이 분들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복음과 램넛트 운동을 할지 이야기 해보자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우연히 열린 문이지만 미국 복음화에 중요한 문이 되기 바란다.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성경에 램넛트 7명은 전부 전도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시대를 이끌어 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상에 이끌려 간다. 그런데 이 분들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자기 문제에 잡혀서 거기에 얽혀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미국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쉽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무슨 큰 미국을 이끌어 가냐고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미국의 영적 흐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상당히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 갈 필요는 없다. 미국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 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국의 정치도 이끌어 가도록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미국의 영적 흐름은 미국의 교회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복음과 같은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전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확신해 본적이 없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복음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해한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리고 누가 이것을 막겠는가?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고 전도자인 것이다. 우리가 감히 남미 인구가 6억이 넘는데 여기서 남미 오천종족 운동을 입으로 말하겠는가? 원리는 똑같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다. 시간은 걸릴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 결론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과 일한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복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가 세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꿀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뒤집어버렸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한 복음운동에 역사가 바뀌었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이것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을까를 확실하게 잡으면 그 사람도 이런 인생 살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대적인 복음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시대적인 기도와 시대적인 확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 이것을 세상에 확인해 줄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 바란다.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다.

1. 전도자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전도는 능력이고 권세고 응답이다. 예전에 복음을 모를때에는 노력이고 힘들고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나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 만일 전도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냐는 생각을 한다. 이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라고 생각한다. 남미에 이 성경적 전도를 전달하고 남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여기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따는 것이다. 노력이 아니고 축복이고 권세고 응답이다. 이 시대적인 성경적 전도자 사도바울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9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사도라고 한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니가 예수님 본적 있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율법이나 유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가 이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 했다. 나는 주님을 봤다. 그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도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교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한 것이다. 그 이후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도들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만 나는 그것도 안 사용한다는 것이다. 본문 15절에 그 이유를 써 놓았다. 9장 15절에,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도들은 그 권리로 마시고 즐기지만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복음에 흠이 갈까봐. 인간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공격을 한다. 니가 무슨 사도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 돈 받아서 돌아다니냐고 말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고 하였다. 5절에 보면 나는 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고 하였다. 6절에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이 없겠냐는 것이다. 둘은 일해서 먹고 살았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자기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는 것이다 7절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는 것이다. 누가 양을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냐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9절이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고 먹도록 나누라는 것이다. 어찌 그것이 소를 위한 말씀이겠냐는 것이다. 이것은 나같은 일꾼을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이다. 왜 나는 그런 권리가 없겠냐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예전에는 나도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중요하게 보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괜히 육신적인 것을 탐낸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몰라도 한참 몰랐다. 영적인 것 없으면 다 죽는다. 내 인생 전체도 다 죽는다. 13절 14절에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을 쓰지 않는 이유를 말한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자기는 어떤 전도자인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를 말하고 있다.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전하는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만일 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사명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분을 말한 것이다. 자기가 누군가 전도와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나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중에는 나를 포함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게 딱 꽃혔다. 그래서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 때문에 상급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렸냐면 이 전도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되는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상이 없고 부득불 안할 수 없다. 끌려가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이 없고 거기에 내 권리를 안 쓰는 것 말고 내 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돈 벌어서 사는게 내 상이고 그게 안되면 굶고 매맞고 감옥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축복하는게 내 상이지,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거기에는 내 상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다. 그게 사도바울의 설명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기록에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다. 어디에 나 같은 사도가 있냐? 봤어? 이런 것도 아마 들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중요한 전도자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있다. 19절에서 23절까지 길게 설명했다. 거기 보면 나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지만 종이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건지려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디에 걸리겠느냐, 그런데 나는 종처럼 산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된다. 나는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유는 그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앙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따라갈 필요 없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전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는 영권이 부족해서이다. 영적 힘이 부족해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것이다. 주로 가족들에게 더 그렇다. 내가 가진게 많은데 막힌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갈 영적인 힘이 없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더 엄격한 율법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율법이 더 엄격하다. 그냥 옛날 율법에는 옆집어 안 훔치면 율법 지킨 것이다. 예전에 이해 못할때에는 사도바울이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율법이 완전하냐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안하면 지킨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탐내는 순간 훔친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간다는 것이다. 탐심 하나 때문에. 왜 이랬냐면 완전히 끝까지 밀어붙여서 절대 오직 예수 아니면 영원히 희망 없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런 율법을 말한 것이다. 여하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를 사도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영적으로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자리를 잡고 바깥으로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일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를 부인할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소원에 생각이 맞춰지지 않고는 안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람인데, 답이 난 사람은 그런데 걸리지 않는다. 사람과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교역자, 중직자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전도자로서 또 한 중요한 표현을 했다. 24-25절에 운동경기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마라톤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 뛰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뛰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을 방향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고 그 싸움을 하는 상대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중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내가 누구와 싸우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온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다. 왜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옛날에는 허공을 쳤다. 싸우느라고. 복음이 선명하니까. 우리의 상대는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237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자인가, 자기는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전도하는 기능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도자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승리하기를 바란다.

## 2. 내용

결국은 내용이 모든 것의 결론을 낸다. 열심도 필요하고 사명도 중요

하지만 내용이 다르면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올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응답 안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는 공이 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내용이 깊었을 것이다. 다른 사도들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이 이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아주 선명했을 것이다. 이 예와 소원에 대한 것은 이 서신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확인할수 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이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미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다. 처음에 문이 열릴 때 나는 굉장히 힘들었다. 힘든 때였다. 그리고 답이 있다고 내 스스로 판단할수 없는 때였다. 그 때는 교회가 힘들고 사람들이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뭘 해야 할 지도 몰랐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달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화를 안 냈다. 왜냐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래서 방황했다. 그리고 있는데, 그 때에 기회가 와서 엔세나다에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 때 만난 사람이 리카르도 이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10년 되었는데 6월에는 제자들만 모아서 남미 5천 중족 집회를 할 것이다. 대부분 목사님들이다. 그런데 답 없었다. 교회에서 뭘 할지를 모르는데 무슨 답이 있는가? 답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줬다는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 혼자 생각한 이유이다. 내가 답도 없었지만 성경이 말하는데로 복음을 설명할 정리는 되어 있었다. 영어도 잘 안되는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겠는가? 성경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라도 정리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 나는 아직도 증인이라고 생각 안한다. 나는 성경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정도이다. 사도 바울은 증인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고 분명하다. 사도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 논리를 따라올 수 없다. 아주 선명하게 선을 그어 놓았다. 출발이다. 지금도 나는 남미의 제자들과 일주일에 3번 다락방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른 지식이다. 물론 지금은 누림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옛날과 많이 다르다. 그것이 힘이다. 힘이지 내용은 아니다. 이것은 내용에서 나온 결과이다. 증거는 내용은 아니다.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문 열린다. 영적 문 열리면 육신 문이 따라온다. 옛것에 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읽어 가면서 이야기 했다. 왜냐면 거기 분명하게 기록된 복음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유월절, 이사야 7장, 마태복음 16장 했다. 그리고 창세기를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곳만 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하고 맞으니까 따라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붙여진 성도들을 위해서 수없는 기도와 눈물, 하나님의 마음과 달은 것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의는 지식이라면 이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 복음화에 성공할것인가? 남미 복음화는 어떻게 성공할것인가? 진짜 남미 끝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이 내용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 내용에 관하여 어떤 교회인가에 다 달려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기도응답을 누리는 비밀이다. 기도응답의 답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하나님은 답대로 하신다. 그리고 그 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다. 하나님은 답대로 하는데 우리가 다른 기도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다. 이것 말고는 답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죽으심과 피흘리심, 거기서 기다리신다. 우리가 거기서 가야 한다. 일일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문제 계속 오니까. 그리고 기도한다고 내 맘대로 되는것도 아니다.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마음과 언약이 통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대로 주겠다는 것이 마6:33이다. 여하튼 저절로 응답이 일어나고 인생 정복하기 바란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한다. 남미 미국 끝까지 가야 한다. 이유를 발견하고 언약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란다.